

2023년 3-2

KIET 경제·산업동향

2023년 3월

산업연구원
동향·통계분석본부

〈 차례 〉

〈 요약 〉	1
1. 해외경제	3
2. 실물경제	6
3. 국내금융	8
4. 산업별 동향	10
5. 고용	12
6. 수출입	13
〈 부 록 〉	
한국경제의 실속(失速), 높아지는 경착륙(硬着陸) 가능성 [현대경제연구원(2023년 3월)]	16
국내의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18

〈 요약 〉

□ 해외경제 : 연준(Fed)과 유럽중앙은행(ECB) 각각 25bp, 50bp 금리 인상

- 미국은 2월 실물지표들의 부진과 체감·선행지표들의 약세가 나타난 가운데 연준이 연말 美 성장률 전망치를 0.4%로 하향하고, 기준금리는 25bp 인상
- 일본은 1월 생산 급감과 소비 증가 등 실물지표들의 혼조세 속에 정부가 물가 대책으로 20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제출하고, 유로존은 연초 실물지표들이 동반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유럽중앙은행(ECB)은 50bp 금리 인상을 결정
- 중국은 연초 실물지표들이 전년 말보다 증가세가 확대된 모습을 보인 가운데 정부가 글로벌 경제 불안정을 배경으로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약 5%로 제시
- 달러화는 3월초 파월 의장의 매파적 기조 발언으로 일시 강세를 보이고, 美 SVB 파산과 크레디트스위스 유동성 위기 등의 여파로 금리와 함께 하락
- 유가는 파월 의장의 의회 증언과 美 SVB·시그니처은행 파산, 크레디트스위스 위기 등으로 하락세를 보인 이후, 은행위기 우려가 진정되면서 반등 전환

□ 국내경기 : 1월 전산업생산 전월비 +0.5%, 소비·투자 동반 감소세

- 지난 1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생산이 7개월 만에 증가(전월비 2.9%)하고, 서비스업생산도 소폭이나마 증가(0.1%)한 데 힘입어 전월비 0.5% 증가
 - 소매판매는 준내구재 등 모든 품목에서 감소하면서 3개월 연속 감소세(-2.1%)를 보이고, 설비투자도 기계류 감소 여파로 감소세(-1.4%)가 지속

□ 금 용 : 2월 기업대출 증가세 둔화·가계대출 감소세 둔화, 3월 중순(3월 13일 ~ 27일) 금리 및 원/달러 동반 하락

- 2월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은 중소기업 대출의 확대에도 대기업 대출이 소폭 증가에 그치면서 전월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 시)도 특히 기타대출의 전월비 감소 규모가 축소되면서 전월비 감소세가 둔화

- 국고채(3년) 금리는 美 SVB 사태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강화, 크레디트스위스 유동성 위기, 글로벌 침체 가능성 등에 따른 우려감이 높아지면서 하락
- 원/달러 환율은 美 SVB 파산과 크레디트스위스 및 美 시그니처은행 사태 등으로 급등락세를 거듭한 이후, 연준의 금리 인상 마무리 기대감으로 하락

□ 산업별 동향 : 1월 제조업생산 전년동월비 -13.2%, 서비스업생산 +5.9%

- 제조업생산은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등을 제외하고 반도체, 전자부품, 화학제품, 1차금속, 기계장비 등에서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전년동월비 13.2% 감소
 - 제조업ICT는 감소폭이 확대, 중공업과 경공업 역시 감소폭이 동반 확대
- 서비스업생산은 전문·과학·기술서비스 등에서 감소한 반면, 운수·창고, 숙박·음식점, 도소매,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서비스 등에서 증가함에 따라 5.9% 증가

□ 고용 : 2월 전산업 취업자 수 기준 전년동월비 1.1% 증가

- 지난 2월 국내 전산업의 취업자 수는 농림·어업과 제조업에서 취업자 감소세가 이어진 데다, SOC·기타서비스업에서도 취업자 증가세가 현저히 둔화되면서 전년동월비 증가율이 2021년 2월 이후 최저치인 1.1%를 기록

□ 수출입 : 2월 수출 -7.5%, 수입 +3.5%, 무역적자 약 53억 달러

- 지난 2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7.5% 감소한 501억 달러, 수입은 3.5% 증가한 554억 달러로써 무역수지는 약 53억 달러 규모의 적자를 기록
- 수출이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일반기계, 석유제품, 가전 등에서 증가세를 보인 반면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등 ICT 품목들과 석유화학, 철강, 섬유, 선박류 등 다수 품목에서 감소세가 나타나고, 지역별로는 對 중국과 아세안, 일본, 중남미, CIS 등 다수 지역으로의 수출이 감소세가 지속

1. 해외경제

□ 미국 : 2월 생산 보합·소비 감소, 연준 금리 4.75~5%로 25bp 인상

○ 지난 2월 생산 보합과 소비 감소 등 실물지표들이 부진세를 보이고, 체감지표들과 선행지수의 약세 등 전반적으로 실물경기 하강세를 시사. 연준이 3월 회의 이후 연말 美 성장률 전망치를 0.4%로 하향하고, 기준금리는 25bp 인상

- 산업생산이 제조업(전월비 0.1%)과 유틸리티(0.5%) 부분의 동반 증가에도 광업(0.6%)의 감소 여파로 보합에 그치고, 소매판매는 자동차·부품(-1.8%), 가구(-2.5%), 주유소(-0.6%) 등의 판매가 동반 감소함에 따라 감소 전환
- 체감지표는 ISM 제조업지수가 9개월 만에 상승 전환에도 4개월 연속 기준치(50)를 하회하고, 소비자신뢰지수는 현재 평가지수(152.8)의 상승에도 미래 기대지수(69.7)가 7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2개월 연속 하락
- 비농업 일자리 증가 규모가 제조업 부분의 감소 전환으로 전월보다 축소(전월비 31.1만명)되고, 경기선행지수는 전월 대비 11개월 연속 하락세
- 연준이 3월 FOMC 회의 이후 2023년 말 美 성장률 전망치를 0.4%로 하향한 가운데 은행위기 우려감 속에 기준금리를 4.75~5%로 25bp 인상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2/4	3/4	4/4	11월	12월	1월	2월
국내총생산(GDP, 연율) (전년동기비, %)	5.9	2.1	-0.6 (1.8)	3.2 (1.9)	2.7 (0.9)				
산업생산 (IT생산)	4.9 (12.1)	3.7 (4.0)	1.2 (0.2)	0.3 (1.6)	-0.9 (-3.9)	-0.6 (-0.8)	-1.4 (-5.6)	0.3 (-4.9)	0.0 (-0.6)
내구재수주	15.6	10.4	1.9	1.9	1.4	-1.8	5.1	-5.0	-1.0
소매판매	19.8	9.2	2.7	0.8	0.2	-1.1	-0.8	3.2	-0.4
소비자물가	4.7	8.0	2.3	1.4	1.0	0.2	0.1	0.5	0.4
실업률(%)	5.4	3.6	3.6	3.6	3.6	3.6	3.5	3.4	3.6
무역수지(10억US\$)	-845.0	-945.3	-252.2	-207.0	-205.0	-60.6	-67.2	-68.3	-
ISM 제조업지수 ¹⁾	60.6	53.5	54.8	52.2	49.2	49.0	48.4	47.4	47.7
소비자신뢰지수 ²⁾	112.0	104.5	103.4	102.2	104.2	101.4	109.0	106.0	102.9
경기선행지수 ³⁾	113.8	114.7	116.0	114.0	111.5	111.5	110.6	110.3	110.0

자료 : 美 상무부, 노동부, 연준, 컨퍼런스 보드, 공급자관리협회(ISM).

주 1) 기준선인 50을 상회하면 경기 확장, 하회하면 경기 수축을 각각 의미함.

2) 1985년=100, 3) 2016년=100.

□ 일본 : 1월 생산 급감·소비 증가, 정부 高물가 대책 20조원 예산안 제출

- 올 1월중 생산 급감과 소비 증가 등 실물지표들이 혼조세를 보이고, 무역적자 규모가 엔저 등의 여파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경기선행지수는 3개월 연속 하락세. 日 정부는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高물가 대책으로 LPG 보조와 저소득가구 지원(30만원) 등을 포함하는 20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제출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2/4	3/4	4/4	10월	11월	12월	1월
국내총생산(실질GDP)	2.1	1.0	1.2	-0.3	0.0				
광공업생산	5.6	0.1	-2.7	5.9	-3.0	-3.2	0.2	0.3	-5.3
민간기계수주	6.0	5.5	6.7	-1.6	-4.7	3.5	-6.7	0.3	9.5
소매판매	2.0	2.6	1.3	1.3	1.2	0.4	-0.2	0.3	0.8
소비자물가	-0.2	2.5	1.0	0.9	1.1	0.4	0.3	0.4	-0.6
실업률(%)	2.8	2.6	2.6	2.6	2.5	2.6	2.5	2.5	2.4
무역수지(10억엔)	-1,784	-19,966	-4,596	-6,312	-5,662	-2,171	-2,032	-1,459	-3,499
경기선행지수 ¹⁾	101.8	100.0	101.3	99.8	97.6	98.8	97.3	96.9	96.5

자료 : 日 내각부, 경제산업성, 재무성, 총무성 등.

주 1) 2015년=100.

□ 중국 : 연초 실물지표 부진 완화, 올해 中 성장률 목표치 5% 안팎 제시

- 연초 생산 등 실물지표들이 전년 말보다는 증가세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특히 소비가 5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고, 수출 감소세가 둔화된 점은 고무적. 中 정부가 글로벌 경제 불안정을 배경으로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제시한 가운데 인민은행은 3개월 만에 다시 기준을 25bp 인하를 단행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년동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2/4	3/4	4/4	11월	12월	1월	2월
국내총생산(실질GDP)	9.1	3.0	0.4	3.9	2.9				
산업생산	9.3	3.4	0.6	4.8	2.8	2.2	1.3	-	2.4
고정투자(누계기준)	4.9	5.1	6.1	5.9	5.1	5.3	5.1	-	5.5
소매판매	12.4	-0.8	-4.9	3.5	-2.7	-5.9	-1.8	-	3.5
소비자물가	0.9	2.0	2.2	2.7	1.8	1.6	1.8	2.1	1.0
수출(달러화기준)	29.6	7.0	28.1	20.1	2.3	-9.0	-9.9	-	-6.8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 유로존 : 1월 생산·소비 소폭 증가, 유럽중앙은행(ECB) 50bp 금리 인상

- 연초 역내 생산 및 소비 등 실물지표들이 동반 증가세를 보이고, 경제체감지수가 3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4개월 만에 최고치. 유럽중앙은행(ECB)은 최근의 은행위기 확산 우려에도 인플레이 억제를 위해서 50bp의 금리 인상을 단행

유로존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2/4	3/4	4/4	10월	11월	12월	1월
국내총생산(실질GDP)	5.3	3.5	0.9	0.4	0.0				
산업생산	8.8	2.1	0.5	0.4	-0.3	-1.8	1.4	-1.3	0.7
소매판매	5.1	0.8	-0.4	-0.7	-0.9	-1.4	0.6	-1.6	0.3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2.6	8.4	8.0	9.3	10.0	10.6	10.1	9.2	8.6
무역수지(10억유로)	108.1	-325.3	-97.6	-122.3	-56.5	-29.1	-14.0	-13.4	-11.3
경제체감지수 ¹⁾	110.7	101.8	103.8	96.9	95.3	93.8	95.1	97.1	99.8

자료 : 유로통계청(Eurostat), 유로중앙은행(ECB) 등.

주 1) 2000년=100.

□ 국제금융·유가 : 미 달러 하락 & 유가 하락 이후 반등 전환

- 달러화는 3월초 파월 의장의 매파적 기조 발언으로 일시 강세를 보인 이후, 美 SVB 파산과 크레디트스위스 유동성 위기 등의 여파로 금리 하락과 함께 동반 하락. 3월 들어 달러화는 엔화 및 유로화 대비 각각 3.4%와 2.1% 하락
- 유가는 미국의 원유재고 증가세에도 3월초에 일시 강세를 보이고, 파월 의장의 의회 증언과 美 SVB 및 시그니처은행 파산, 크레디트스위스 위기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인 이후, 글로벌 은행위기 우려가 진정되면서 반등 전환

주요 국제가격

(기말기준, %, 달러/배럴)

	2022							2023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27일
엔/달러	135.72	133.27	138.96	144.74	148.71	138.07	131.12	130.09	136.17	131.57
달러/유로	1.0484	1.0220	1.0054	0.9802	0.9882	1.0406	1.0705	1.0863	1.0576	1.0798
미 국채 (10년만기)	3.01	2.65	3.19	3.83	4.05	3.61	3.87	3.51	3.92	3.53
WTI유	105.8	98.6	89.6	79.5	86.5	80.6	80.3	78.9	77.1	72.8
두바이유	115.0	105.8	95.6	90.1	90.0	80.2	78.7	79.3	81.3	73.6

자료 : 한국은행, 「금리 및 환율 동향」.

2. 실물경제

□ 국내경기 : 1월 전산업생산 전월비 +0.5%, 소비·투자 동반 감소세

○ 지난 1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생산이 7개월 만에 증가(전월비 2.9%)하고, 서비스업생산도 소폭이나마 증가(0.1%)한 데 힘입어 전월비 0.5% 증가

- 광공업생산은 반도체(-5.7%)와 기계장비(-6.1%)의 감소 영향에도 자동차(9.6%), 기타운송장비(12.8%), 1차금속(6.7%) 등을 중심으로 전월비 2.9% 증가하고, 서비스업생산은 도소매(5.4%) 등에서 증가함에 따라 0.1% 증가

국내 실물경제 지표

(전년동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2/4	3/4	4/4	10월	11월	12월	1월
GDP성장률	4.1*	2.6*	2.9* (0.7*)	3.1* (0.3*)	1.3* (-0.4*)	-	-	-	-
민간소비(국민계정)	3.7*	4.3*	3.9* (2.9*)	5.7* (1.7*)	3.4* (-0.6*)	-	-	-	-
설비투자(국민계정)	9.0*	-0.5*	-6.6* (0.5*)	4.1* (7.9*)	7.0* (2.7*)	-	-	-	-
건설투자(국민계정)	-1.6*	-3.5*	-3.7* (0.2*)	-2.1* (-0.2*)	-3.1* (0.8*)	-	-	-	-
전산업생산지수	5.5	4.5*	5.8 (0.9)	5.6 (0.3)	1.9* (-1.5*)	3.9 (-1.2)	1.4 (-0.4)	0.7* (0.0*)	-0.8* (0.5*)
광공업생산지수	8.2	1.4*	5.6 (-2.3)	1.4 (-2.4)	-6.4* (-6.4*)	-2.7 (-3.7)	-5.5 (-0.4)	-10.5* (-3.1*)	-12.7* (2.9*)
제조업생산지수	8.4	1.4*	5.6 (-2.2)	1.4 (-2.6)	-6.7* (-6.7*)	-2.8 (-3.8)	-5.7 (-0.4)	-11.1* (-3.6*)	-13.2* (3.2*)
서비스업생산지수	5.2	6.8*	6.9 (3.0)	8.6 (1.6)	6.0* (0.2*)	7.1 (-0.3)	4.1 (-0.7)	6.7* (1.5*)	5.9* (0.1*)
소매판매액지수	8.3	-0.4*	-0.2 (-0.9)	-1.0 (-0.1)	-2.3* (-0.9*)	-1.5 (0.8)	-2.2 (-2.1)	-3.1* (-0.2*)	0.7* (-2.1*)
설비투자지수	9.6	3.3*	-2.4 (-0.4)	7.5 (8.6)	9.6* (-0.2*)	16.7 (0.1)	10.7 (0.3)	3.2* (-6.1*)	-3.9* (-1.4*)
건설기성액	-6.7	2.7*	2.0 (-0.1)	3.5 (0.8)	6.5* (4.6*)	9.4 (4.7)	11.8 (-0.7)	0.5* (-0.7*)	0.9* (1.8*)
동행종합지수(2020=100)	104.1	108.6*	108.2	109.3	109.2*	109.6	109.2*	108.7*	108.5*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99.6	101.0*	101.0	101.2	100.5*	101.1	100.5*	99.8*	99.4*
선행종합지수(2020=100)	106.3	108.7*	108.5	109.2	109.6*	109.6	109.6*	109.5*	109.5*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101.2	99.8*	100.1	99.7	99.2*	99.5	99.3*	98.8*	98.5*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1)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는 잠정치, **는 속보치.

2) 전산업생산지수는 농림어업 제외 기준.

- 소매판매는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전월비 -1.9%)가 3개월 연속 감소하고, 의복 등 준내구재(-5.0%)도 감소 전환한 데다, 승용차 등 내구재(-0.1%) 역시 전월에 이어 감소한 영향으로 3개월 연속 감소세가 지속(-2.1%)
- 설비투자는 운송장비(전월비 15.9%)에서 증가한 영향에도 기계류(-6.9%)에서 감소하면서 전월에 이어 감소세(-1.4%)가 이어지고, 건설기성액(불변)은 토목(-10.3%) 공사 감소에도 건축(5.9%) 공사 증가에 힘입어 1.8% 증가
- 동행종합지수는 서비스업생산지수와 내수출하지수 등이 상승한 반면에, 소매판매액지수 등이 하락하면서 3개월 연속 하락세(전월비 -0.2%)가 이어지고, 선행종합지수는 장단기금리차와 재고순환지표 등이 하락한 반면에, 건설수주액과 코스피지수 등이 상승하면서 전월 수준에서 보합(0.0%)

□ 물가 : 2월 생산자물가 전월비 +0.1%, 전년동월비 +4.8% 상승

- 2월 소비자물가는 교통(전월비 -0.7%) 부문을 제외하고 음식숙박(0.6%)과 주택·수도·전기·연료(0.5%), 식료품·비주류음료(0.4%), 교육(0.2%) 등 나머지 거의 모든 부문에서 상승세를 보인 영향으로 전월비 0.3% 상승(전년동월비 4.8%)
- 2월 생산자물가는 공산품 가격의 소폭 상승 전환(전월비 -0.3% → 0.1%)에도 농림수산물 가격이 하락 전환(0.6% → -0.2%)하고, 서비스 가격의 상승세가 둔화(0.5% → 0.3%)한 영향으로 인해 전월비 0.1% 상승(전년동월비 4.8%)

국내 주요 물가

(전년동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2/4	3/4	4/4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소비자물가	2.5	5.1	5.4 (2.1)	5.9 (1.1)	5.3 (0.4)	5.6 (0.3)	5.7 (0.3)	5.0 (-0.1)	5.0 (0.2)	5.2 (0.8)	4.8 (0.3)
근원물가	1.8	4.1	4.0 (1.4)	4.5 (0.9)	4.8 (1.2)	4.5 (0.3)	4.8 (0.6)	4.8 (0.3)	4.8 (0.4)	5.0 (0.7)	4.8 (0.3)
생산자물가	6.4	8.4	9.9 (3.5)	8.4 (0.7)	6.5 (0.1)	7.9 (0.1)	7.3 (0.5)	6.2 (-0.3)	5.8 (-0.4)	5.1 (0.4)	4.8* (0.1*)
근원물가	6.0	6.4	7.7 (2.4)	5.8 (0.1)	4.0 (-0.1)	5.2 (0.0)	4.5 (0.2)	3.9 (-0.2)	3.6 (-0.2)	3.0 (0.2)	2.8* (0.3*)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주 1)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2) 소비자물가의 근원물가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 생산자물가의 근원물가는 식료품 및 에너지 이외 지수를 각각 의미.

3. 국내금융

□ 기업자금·가계대출 : 2월 기업대출 증가세 둔화·가계대출 감소세 둔화

- 지난 2월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은 중소기업 대출의 확대 영향에도 대기업 대출이 소폭 증가에 그치면서 전월비 증가세가 둔화
(23년 1월 +7.9조원 → 2월 +5.2조원, 대기업 +0.9조원, 중소기업 +4.3조원)
 - 대기업 대출이 전월의 계절요인(연말 일시 상환분의 재취급) 소멸과 회사채 발행 확대에 의한 대출수요 둔화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현저히 둔화
 - 반면에 중소기업 대출은 일부 은행들의 대출 확대 노력 등으로 인해 전월비 증가폭이 확대
- 회사채는 회사채 투자수요 호조에 따른 발행 여건의 선으로 순발행이 확대
(2023년 1월 +3.2조원 → 2월 +4.3조원)
- CP·단기사채는 전월 선차환 발행 등의 영향으로 순상환 기조로 전환
(2023년 1월 +6.9조원 → 2월 -1.7조원)
- 주식발행 규모는 전월 대비 소폭 증가
(2023년 1월 +1.5조원 → 2월 +0.2조원)

기업 자금조달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2021		2022			2023			23.2월말 잔액
	1~2월	2월	1~2월	2월	12월	1~2월	1월	2월	
■은행 원화대출	19.0	8.9	19.6	6.3	-9.4	13.1	7.9	5.2	1,183.4
(대 기업)	4.0	0.6	4.8	0.7	-6.1	7.5	6.6	0.9	224.4
(중소기업)	15.0	8.4	14.8	5.6	-3.3	5.6	1.3	4.3	959.0
<개인사업자>	6.6	4.1	4.9	2.7	-0.8	0.5	-0.9	1.4	443.2
■회사채 순발행	5.9	3.7	3.1	0.7	0.6	7.5	3.2	4.3	..
■CP 순발행	5.6	2.3	10.2	4.4	1.5	5.2	6.9	-1.7	61.7
■주식발행	2.4	0.7	13.0	0.0	0.6	1.8	1.5	0.2	..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2023년 2월중 금융시장 동향).

- 2월 은행들의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소폭 감소한 반면에, 기타대출의 감소폭이 축소되면서 전월비 감소세가 둔화
(2023년 1월 -4.7조원 → 2월 -2.7조원)

-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매매 및 집단대출 관련 자금수요가 증가한 반면에, 전세자금대출 감소 규모가 확대되면서 소폭 감소 전환
(모기지론 양도 포함 : 2023년 1월 0.0조원 → 2월 -0.3조원)
- 기타대출은 고금리, 대출규제 등에도 전월의 계절요인 소멸로 감소폭 축소
(2023년 1월 -4.6조원 → 2월 -2.4조원)

은행 가계대출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2021		2022			2023			23.2월말 잔액
	1~2월	2월	1~2월	2월	12월	1~2월	1월	2월	
은행 가계대출	14.3	6.7	-0.6	-0.2	0.3	-7.4	-4.7	-2.7	1,050.7
▪주택담보대출	11.4	6.5	3.9	1.7	3.1	-0.3	0.0	-0.3	798.6
▪기타대출	2.8	0.3	-4.6	-2.0	-2.9	-7.0	-4.6	-2.4	250.8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2023년 2월중 금융시장 동향).

□ 금리·환율 : 3월 중순(3월 13일 ~ 27일) 금리 & 원/달러 동반 하락

- 국고채(3년) 금리는 3월초 파월 의장의 매파적 기초 발언으로 상승세를 보인 이후, 美 SVB 사태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강화에 하락세가 이어지고, 크레디트스위스 유동성 위기와 글로벌 경기침체 등의 우려가 높아지면서 추가 하락
(3월 13일 3.435% → 3월 27일 3.220%, -0.22%p)
- 원/달러 환율은 3월 들어 파월 의장의 빅스텝 인상 시사 발언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美 SVB 파산과 크레디트스위스 및 美 시그니처은행 사태 등으로 급등락세를 거듭한 이후, 3월 FOMC 이후 금리 인상 마무리 기대로 하락세
(3월 13일 1,301.8원 → 3월 27일 1,301.5원, -0.3원)

주요 금리 및 환율

(%, 원)

	2021		2022				2023		
	3/4	4/4	1/4	2/4	9월	12월	1월	2월	3.27일
국고채(3년)	1.59	1.80	2.66	3.55	4.19	3.72	3.33	3.80	3.22
회사채(3년,AA-)	2.05	2.42	3.34	4.36	5.28	5.23	4.34	4.48	3.99
CD(91일)	1.04	1.29	1.51	2.04	3.24	3.98	3.63	3.59	3.59
CP(91일)	1.18	1.56	1.66	2.34	3.30	5.28	4.57	4.06	4.03
원/달러	1,184.0	1,188.8	1,212.1	1,298.4	1,430.2	1,264.5	1,231.9	1,322.6	1,301.5
원/100엔	1,058.2	1,030.2	992.7	946.5	993.3	953.2	942.2	967.4	986.3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금융감독원.

주 : 기말 종가 기준.

4. 산업별 동향

□ 제조업생산 : 1월중 전년동월비 -13.2%, 전월비 +3.2%

○ 제조업생산은 자동차(10.9%), 기타운송장비(21.1%), 통신·방송장비(35.4%) 등을 제외하고, 반도체(-33.9%), 전자부품(-32.6%), 화학제품(-23.6%), 1차금속(-15.6%), 기계장비(-7.4%) 등에서 감소한 여파로 전년동월비 13.2% 감소

- 공업구조별로는 제조업ICT에서 감소폭(-29.8%)이 더욱 크게 확대되고, 중공업(-14.1%)과 경공업(-8.4%) 역시 전월에 이어 감소폭이 동반 확대

- 전월비 기준으로는 반도체(-5.7%), 전자부품(-2.8%), 기계장비(-6.1%) 등에서 감소한 반면, 자동차(9.6%), 기타운송장비(12.8%), 1차금속(6.7%), 섬유제품(6.8%), 화학제품(3.9%) 등에서 증가함에 따라 전월비 증가 전환(3.2%)

○ 제조업 생산능력지수(100.4)는 반도체와 자동차, 통신·방송장비 등의 업종에서 전년동월비 상승세가 이어진 반면, 전자부품, 기계장비, 식료품 등의 업종에서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전년동월비 1.2% 하락, 전월비 기준으로도 0.5% 하락

-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120.0%로 전월에 이어 2.2%p 상승하고, 재고출하 순환도는 재고 증가폭이 전월과 달리 확대(4.5% → 9.7%, 계절조정치 전년동월비)된 반면, 출하는 감소폭이 축소(-9.4% → -8.4%)

-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0.9%로 전월보다 2.6%p 상승

□ 서비스업생산 : 1월중 전년동월비 +5.9%, 전월비 +0.1%

○ 서비스업생산은 전문·과학·기술서비스(-1.3%), 정보통신(-0.5%) 등에서 감소한 반면, 운수·창고(11.2%)와 숙박·음식점(9.0%)을 비롯해 도소매(5.4%), 사업시설 관리·지원·임대서비스(5.6%) 등에서 동반 증가하면서 전년동월비 5.9% 증가

- 전월비로는 운수·창고(-2.0%), 숙박·음식점(-0.3%) 등에서 감소한 반면, 도소매(3.7%), 정보통신(3.1%), 전문·과학·기술서비스(0.9%), 사업시설 관리·지원·임대서비스(0.5%) 등에서 증가세를 나타냄에 따라 전월비 0.1% 증가

산업별 생산 동향

(2020=100, 전년동기비, %)

	가중치 (2020년)	2021	2022						2023	
			연간*	2/4	3/4	4/4*	11월	12월*	1월*	전월비*
광공업 (원지수)	10,000	108.2	109.7	113.2	108.4	107.1	106.8	108.7	96.4	-
전년동기비 증감률	-	8.2	1.4	5.6	1.4	-6.4	-5.5	-10.5	-12.7	2.9
제조업 (원지수)	9,569.5	108.4	109.9	114.1	108.8	107.1	107.1	107.8	95.0	-
전년동기비 증감률	-	8.4	1.4	5.6	1.4	-6.7	-5.7	-11.1	-13.2	3.2
섬 유	113.4	2.0	-3.5	-1.3	-3.9	-10.3	-9.4	-15.3	-15.7	6.8
화 학	854.2	8.6	-9.9	-4.8	-16.9	-20.1	-17.8	-25.2	-23.6	3.9
철 강	496.6	5.2	-8.4	-0.6	-11.9	-23.2	-25.9	-18.4	-18.1	8.3
반도체	2,023.8	26.8	7.6	27.4	1.3	-19.8	-22.6	-25.1	-33.9	-5.7
컴퓨터, 주변장치	32.4	27.5	11.0	13.2	14.2	10.7	4.7	17.4	-22.0	-28.7
통신, 방송장비	171.0	23.5	-5.1	-11.0	4.3	-1.1	7.1	-35.9	35.4	111.0
의료, 정밀, 광학	217.2	17.8	6.5	5.0	7.8	5.8	2.0	7.0	-4.2	-2.1
기계, 장비	737.3	12.1	1.1	-4.8	7.2	5.5	12.3	-0.4	-7.4	-6.1
자동차	987.5	6.3	9.1	5.0	18.8	17.5	21.4	11.4	10.9	9.6
조 선	66.0	-7.2	20.9	26.7	21.2	24.2	26.7	26.6	18.3	2.1
- 중 공 업	-	9.9	1.5	6.0	1.2	-7.2	-6.2	-11.8	-14.1	3.0
- 경 공 업	-	1.3	0.4	2.8	2.5	-4.2	-3.3	-7.8	-8.4	4.5
- 제조업ICT	-	19.3	2.2	16.9	-2.1	-19.7	-20.4	-27.2	-29.8	0.6
서비스업 (원지수)	1,000	105.2	112.4	112.9	112.9	118.3	113.8	127.2	111.3	-
전년동기비 증감률	-	5.2	6.8	6.9	8.6	6.0	4.1	6.7	5.9	0.1
도소매	193.7	5.3	2.6	3.1	3.4	1.0	0.1	1.1	5.4	3.7
운수및창고	78.2	4.2	17.7	18.0	23.9	17.7	16.2	15.2	11.2	-2.0
숙박및음식점	44.3	1.9	16.9	19.4	23.0	9.8	3.9	12.8	9.0	-0.3
정보통신	88.7	12.2	1.8	0.1	3.7	-0.8	-2.7	-0.3	-0.5	3.1
금융및보험	166.9	8.0	8.4	7.9	8.8	12.6	6.6	19.5	10.0	-5.0
부동산	38.7	2.3	7.9	7.5	9.5	5.9	6.8	2.0	6.0	5.4
전문·과학및기술	95.5	2.7	2.8	1.8	5.0	-0.3	0.9	-2.8	-1.3	0.9
사업시설관리 등	53.5	2.3	2.3	5.2	6.9	4.2	2.8	4.1	5.6	0.5
교 육	73.4	1.7	1.5	1.3	0.7	0.3	-0.3	0.0	0.3	-0.8
보건및사회복지	110.8	3.3	5.1	8.3	5.3	6.3	6.7	7.3	7.5	0.9
예술·스포츠및여가	19.8	6.9	15.4	42.9	63.5	27.1	20.8	20.0	12.5	-6.4
협회수리및개인	24.0	1.1	1.9	4.3	6.9	5.9	3.0	9.8	4.8	-2.5
수도·하수및폐기물	12.5	2.4	2.3	-6.3	-4.7	-4.9	-4.4	-7.3	4.4	14.8

자료 : 통계청.

주 1) *는 잠정치 기준.

2) 제조업ICT는 사무회계·통신기기·반도체 기준.

5. 고용

□ 취업자 수 : 2월 전산업 기준 전년동월비 1.1% 증가

○ 지난 2월 국내 전산업의 취업자 수는 농림·어업과 제조업에서 취업자 감소세가 이어진 데다, SOC·기타서비스업에서도 취업자 증가세가 현저히 둔화되면서 전년동월비 증가율이 2021년 2월 이후 최저치인 1.1%를 기록

-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전월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0.6%)
- 농림·어업의 취업자 수도 3개월 연속 감소(-3.8% → -3.5%)하고, SOC·기타서비스업의 취업자 증가율은 5개월 만에 최저치(2.3% → 1.8%)
- 건설업의 취업자 수는 전월보다 감소폭이 축소(-1.9% → -0.2%)되고, 도소매·숙박음식점의 취업자 증가폭 역시 축소(2.8% → 1.8%)
- 사업·개인·공공서비스및기타는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1.5% → 0.1%)에서 취업자 수가 소폭 증가하고,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2.3% → 3.1%)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확대된 영향에도,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9.3% → 7.3%)와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6.9% → 1.5%) 등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현저히 둔화되면서 전체 증가율이 하락(3.3% → 2.7%)
- 실업률은 계절조정 기준 전월에 이어 추가 하락하면서 2.6%

산업별 고용 동향

(천명, 전년동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2/4	3/4	4/4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전 산업	27,273	28,089	28,347	28,425	28,216	28,418	28,421	27,808	27,363	27,714
전년동기비	1.4	3.0	3.2	2.8	2.2	2.4	2.3	1.9	1.5	1.1
농림·어업	0.9	4.6	6.0	5.7	2.1	2.9	3.9	-1.1	-3.8	-3.5
제조업	-0.2	3.1	3.0	5.0	3.0	4.7	2.3	1.9	-0.8	-0.6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1.7	2.9	3.0	2.2	2.1	2.0	2.2	2.1	2.3	1.8
건설업	3.7	1.6	2.7	-0.3	0.2	0.6	0.5	-0.6	-1.9	-0.2
도소매·숙박음식점업	-3.5	0.8	-0.4	1.0	2.4	1.7	2.8	2.6	2.8	1.8
전기·운수·통신·금융	5.6	3.9	4.7	3.9	1.0	1.7	0.5	0.7	1.3	0.2
사업·개인·공공서비스등	3.0	3.9	4.4	2.8	2.6	2.5	2.6	2.7	3.3	2.7
실업률 (계절조정, %)	3.7	2.9	2.9	2.8	2.9	2.8	2.8	3.1	2.9	2.6

자료 : 통계청.

6. 수출입

□ 2월 수출 7.5% 감소, 수입 3.5% 증가, 무역적자 53억 달러

○ 지난 2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7.5% 감소한 501억 달러, 수입은 3.5% 증가한 554억 달러로써 무역수지는 약 53억 달러 규모의 적자를 기록

- 수출이 자동차, 자동차부품, 일반기계, 석유제품, 가전 등에서 증가세를 보인 반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등 ICT 품목들과 석유화학, 철강, 섬유, 선박류 등 다수 품목에서 감소세가 나타남에 따라 전체 기준 전년동월비 7.5% 감소(5개월 연속 감소세)하고, 지역별로는 對중국과 아세안, 일본, 중남미, CIS 등 다수 지역으로의 수출이 동반 감소

- 수입은 유가 하락 등으로 원유 수입이 소폭 감소한 영향에도, 가스 수입이 큰 폭(전년동월비 73.2%)으로 증가하면서 3개월 만에 증가 전환

* 원유수입은 도입단가(86.4달러/배럴)가 전년동월비 5.7% 하락한 반면에, 도입물량이 5.9% 증가하면서 전체 금액이 약 0.1% 감소한 약 73억 달러를 기록

수출입 동향

(억 달러,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2/4	3/4	4/4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수출	6,444 (25.7)	6,836 (6.1)	1,771 (13.0)	1,740 (5.8)	1,590 (-10.0)	524 (-5.8)	518 (-14.2)	548 (-9.7)	464 (-16.4)	501 (-7.5)
수입	6,151 (31.5)	7,314 (18.9)	1,835 (23.0)	1,923 (22.6)	1,776 (3.1)	592 (9.9)	588 (2.6)	596 (-2.5)	589 (-2.8)	554 (3.5)
무역수지	293	-478	-64	-183	-186	-67	-71	-48	-125	-53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감률.

□ 자동차·일반기계·석유제품 등의 수출 증가, 13대 품목중 8개 품목 감소

○ 반도체 : 계절적 비수기 진입과 IT시장 둔화 등에 따른 주요 생산업체의 재고 조정으로 인한 출하량 감소, 하방산업 부진(비대면 수요, 빅테크 투자 지연 등)에 따른 주요 제품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5개월 연속 두 자릿수 감소율

- **자동차** : SUV·친환경차 등 고부가가치 차량의 수출비중 확대와 신차 물량의 수출 본격화, 반도체 공급 차질의 완화로 인한 선진시장 내 누적 대기수요의 실현 등에 힘입어 8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
- **자동차부품** : 북미지역에서의 자동차 판매 호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인도·아세안 등 신흥시장에서의 국산 브랜드 판매 호조, 조업일수 증가 영향 등에 힘입어 2022년 11월 이후 3개월 만에 증가 전환
- **선박류** : 2023년 수출 선박은 선가 상승이 시작된 2021년도 수주 계약분에 해당되며, 컨테이너선(전년동월비 +2척)과 탱커(+2척) 등의 고부가가치 선박 인도에도 중소형 선박 위주의 수출물량 증가로 3개월 만에 감소 전환
- **디스플레이** : 공급과잉에 따른 LCD 단가 하락과 국내생산 축소 전환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세트업체들의 OLED패널 재고소진 계획과 생산성 향상에 따른 OLED 단가 하락세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9개월 연속 감소세
- **무선통신기기** : 아이폰14 생산 차질로 인한 이연수요 지속과 국산 플래그십 제품수요 지속 등의 영향에도 고물가로 인한 역대 최장 교체주기(43개월)에 따른 스마트폰 세계수요 감소 영향으로 인해 수출이 감소 전환
- **철강** : 겨울철 비수기 영향에 따른 주요 업체들의 내수공급 주력과 전년동월의 철강 가격 강세에 따른 역기저효과 등으로 수출이 6개월 연속 감소세
- **섬유** : 주요 소싱국(중국·베트남 등)들의 조업일수 증가에도 글로벌 소비재 업황 부진에 따른 수요 약세로 수출이 9개월 연속 감소세
- **석유제품** : 유가 약세로 인한 제품 수출단가 하락에도, 주요 수출품인 경유가 동절기 수요 등으로 높은 가격(105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엔데믹 이후 세계 항공수요 회복에 따른 항공유 수출물량 증가로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
- **석유화학** : 중국의 자급률 상승(PX·PTA 등) 등으로 對중국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공급과잉에 따른 주요 품목들의 단가 하락세와 정기 보수로 인한 국내 설비가동률 하락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7개월 연속 두 자릿수 감소율

- **일반기계** : 굴착기 등 건설기계 수요의 호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국들의 친환경 정책에 따른 수요 증대(히트펌프 등)와 헝가리 배터리 공장 증설, 중동 인프라 투자 확대 등 복합적 요인들로 인해 수출이 6개월 만에 증가
- **가전** : 글로벌 고금리·고물가 기조 여파에도 중견·중소 업체들의 해외판매 비중 확대에 의한 소형제품 수출 확대와 미국에서 대형제품 중심의 판매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수출이 9개월 만에 증가 전환
- **컴퓨터** : 소비자용 SSD 부문에서 PC·태블릿 시장의 역성장과 고객사 재고 적체 등이 이어지고, 기업용 SSD 부문에서도 빅테크 업체들의 재고조정 및 서버투자 증가세 둔화 등이 이어지면서 수출이 8개월 연속 두 자릿수 감소율

산업별 수출 동향

(전년동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2/4	3/4	4/4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자동차	24.2	16.4	6.8	31.2	29.0	28.3	30.5	28.1	21.8	47.1
자동차부품	22.2	2.4	-0.7	7.7	-1.1	3.1	0.8	-6.3	-16.2	13.3
선박류	16.4	-20.9	-6.7	5.9	-22.6	-8.8	-68.2	76.0	84.7	-10.5
일반기계	4.6	2.0	0.3	0.2	-3.1	-3.5	-1.9	-3.9	-15.9	12.8
철 강	36.9	5.7	17.2	-5.2	-17.6	-20.8	-10.6	-20.9	-25.8	-9.8
석유화학	54.8	-1.4	7.0	-9.8	-25.1	-25.4	-26.2	-23.6	-24.1	-18.4
석유제품	57.7	64.9	90.9	78.2	18.0	9.3	24.4	20.8	14.6	12.0
섬 유	14.0	-4.0	-1.9	-5.8	-18.7	-19.1	-20.2	-17.0	-27.7	-4.2
가 전	24.0	-7.4	0.0	-15.0	-24.0	-22.3	-25.1	-24.8	-20.0	4.2
무선통신기기	45.9	-10.4	-3.7	-14.9	-19.0	-5.5	-18.9	-33.3	17.7	-1.8
컴퓨터	24.7	-4.7	30.0	-26.8	-41.0	-37.1	-50.1	-34.7	-63.8	-64.9
반도체	29.0	1.0	13.6	-3.9	-25.8	-17.4	-29.9	-29.1	-44.5	-42.5
디스플레이	18.9	-1.1	4.7	-10.0	-20.2	-7.9	-15.6	-35.9	-36.0	-40.9

자료 : 한국무역협회.

부록	한국경제의 실속(失速), 높아지는 경착륙(硬着陸) 가능성
-----------	--

현대경제연구원(2023년 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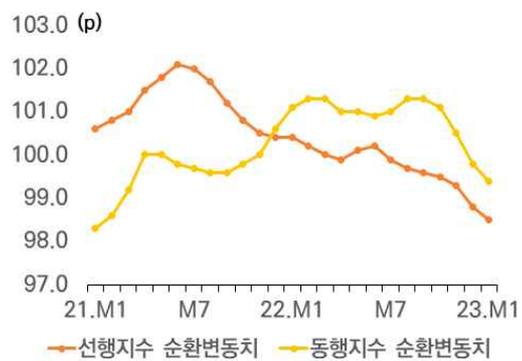
- 한국경제가 역성장 국면(전기비 마이너스 성장)에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 선행지수가 장기간 하락세를 보이면서 경기 전환 시점의 예단이 어려운 상황
 - 지난해 4분기중 민간소비와 순수출의 침체 여파로 국내경제 성장률이 전기비 -0.4%에 그치면서 2020년 2분기 이후 2년 반 만에 역성장 국면에 진입
 -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장기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지난해 말부터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경기 하강 우려가 고조

〈 국내경제 성장률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 경기동행·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



자료 : 통계청.

□ 수요부문별 및 산업별 경기 동향

- **(소비 절벽)** 소매판매가 고물가 및 고금리에 따른 소비심리 악화 등으로 3개월 연속 감소세이며, 모든 소비재 품목에서 감소하는 등 소비 절벽이 가시화
- **(설비투자 부진)** 설비투자 관련 선행지표들(국내기계수주액 및 자본재수입액)이 동반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투자 침체의 장기화 가능성이 우려
- **(건설 경기 불확실성)** 건설기성액과 건설수주액이 최근에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건설비 상승과 부동산 시장 위축 등으로 경기 방향성은 여전히 부정적
- **(수출 경기 양극화)** 수출이 올해 초까지도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수출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으며, 특히 對중국 수출 침체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양상
- **(고용 시장의 질적 악화)** 국내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일자리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서비스업에서는 일자리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는 모습
- **(디스인플레이션)** 공급측 물가 상승 압력(수입물가·생산자물가)이 상당 정도 완화된 반면, 공공재 가격 인상 등으로 소비자물가 안정세는 여전히 난망

- (경제 심리 불안 지속) 고금리와 고물가로 소비 및 투자 여건의 악화가 이어지는 데다, 실물경기 침체 우려로 민간 주체들의 미래 불확실성 우려도 증폭
- (산업별 동향) 제조업에서 생산 감소와 가동률 급락 등 침체 국면이 진행 중이나, 서비스업 생산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건설수주는 미약하나마 증가세
 - 제조업은 출하 증가율이 급락하고, 재고 증가율이 높아지는 등 시장 수요 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서비스업은 미약하나마 증가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나, 건설업은 특히 건축 부문을 중심으로 침체되어 있는 모습

□ 경기 리스크 요인 및 향후 경기 전망과 시사점

- (경기 방향성 결정 리스크 요인) 한국의 주력 시장인 중국과 미국의 경제 상황, 내수 회복에 결정적인 시장금리의 향방, 고용시장 냉각에 따른 가계의 실질 구매력 위축 여부 등에 의해 한국경제의 방향성도 결정될 것으로 예상
- (현 경기 판단 및 전망) 2023년 1분기 한국경제는 수출 침체와 내수 약화로 성장 속도가 급감하고 있으며,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부정적 기조가 지속 시 한국경제는 경착륙 이후의 침체 장기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 중국 및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 〉



자료 : IMF.

주 : 괄호안 수치는 2022년 10월 전망치 기준.

〈 시나리오별 경기 추세 전망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 (시사점) 한국경제의 '실속'과 '경착륙'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물가 안정'보다는 '성장 강화'에 무게중심을 둔 '경기 진작' 기조가 필요
 - 고용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이고, 실효적인 고용 창출력 확충 방안을 강구
 - 수출 주력 시장에 대한 마케팅 및 수출 증진·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 지원
 -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완화를 위한 중앙은행의 명확한 포워드 가이드스 제시
 - 불황 장기화 가능성에 대응한 사회 안전망의 확충과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월(Mon)	화(Tue)	수(Wed)	목(Thu)	금(Fri)
(3.27)	(3.28)	(3.29)	(3.30)	(3.31)
 1월 경기선행지수 (수 정 치)	 3월 소비자신뢰지수	 3월 소비자동향조사	 2월 무역수지(수)  3월 경제제감지수  22.4분기 실질GDP (확 정 치)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	 2월 산업생산(잠)  2월 소매판매(잠)  2월 실 업 륜  3월 소비자물가(예)  2월 실 업 륜  2월 개인소비  2월 산업활동동향
(4.3)	(4.4)	(4.5)	(4.6)	(4.7)
 3월 ISM 제조업지수	 3월 소비자물가	 3월 ISM 서비스업지수  2월 무역수지		 2월 경기선행지수 (잠 정 치)  3월 고용보고서
(4.10)	(4.11)	(4.12)	(4.13)	(4.14)
	 3월 소비자물가  2월 산업생산	 2월 기계수주  3월 소비자물가  3월 고용동향	 3월 수출입통계  2월 산업생산  3월 생산자물가  금융통화위원회	 3월 산업생산  3월 소매판매
(4.17)	(4.18)	(4.19)	(4.20)	(4.21)
 2월 소매판매(수)	 3월 산업생산  3월 소매판매  3월 고정투자  23.1분기 실질GDP  2월 수출입통계	 2월 산업생산(수)  3월 소비자물가(수)	 3월 무역수지(잠)  3월 경기선행지수	 3월 소비자물가  3월 생산자물가